

## 사전투표 전남 41%·광주 38%...투표 열기 뜨겁다

총선 D-2

전국 사전투표율 31.28%  
21대 총선보다 4.59%p 높아  
'심판' 의지 호남 투표 열기로  
'조국 돌풍' 투표율 끌어올려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기는 등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의 막판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 정권 심판'에 대한 지역민심이 결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사전투표 열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면서 선거일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전국 사전투표율 31.28%...전남 41.19%·광주 38.00%=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마감 결과, 투표율은 31.2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이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 높고,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대 총선(12.19%)과 비교하면 19.09%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41.1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기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강원(32.64%), 서울(32.63%)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제주(28.50%), 경기(29.54%), 부산(29.57%)도 30%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30.06%), 울산(30.13%), 충남(30.24%), 대전(30.26%), 충북(30.64%), 경남(30.71%), 경북(30.75%)은 30%를 넘겼으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호남, 사전투표율 왜 높았나? =광주와 전남,



사전투표 행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북 등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데는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가 사전투표 열기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불만이 어느 지역보다 높았던 야권 성향의 광주·전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날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으로 달려갔을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에 대한 전남 지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지역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정권 심판 바람'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전투표율이었다"면서 "정권 심판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전남·전북은 항상 투표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번에 대구가 전국 최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면서 "이는 호남에서의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전국 선거의 광주·전남지역 사전투표율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율은 광주가 48.27%, 전남은 51.4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지역민의 열기가 그만큼 뜨거웠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뒤 열린 제8대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광주가 17.28%, 전남 31.04%로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투표율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광주의 당시 전체 투표율은 37.7%로 전국에

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민들이 사실상 투표를 외면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대선 이후 첫 '현 정부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사전투표 열기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국 돌풍'도 사전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비례 정당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한 지지층의 사전투표 열기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훈 조국혁신당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은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한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열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번 총선이 현 정권 심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광주시장 관계자의 분석은 달랐다. 사전투표율이 전국적으로 높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호남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분명 광주·전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유리함을 예상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다르다"면서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36.9%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다.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사전투표율이 최고였던 전남 22개 시·군 중 신안이 54.81%를 기록했고,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는 장성(50.04%), 담양(48.90%), 함평(49.77%), 영광(45.90%) 선거구의 투표율이 특히 높았다.

총선특별취재팀/최권일·김지을·김해나 기자 cki@kwangju.co.kr

## 금 한 돈 43만1000원 사상 최고가

인플레이션 시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3.75g(순금 1돈)이 지난 6일 사상 최고가인 43만1000원을 기록했다. 한국금거래소 기준은 10일 연속 금값이 상승하고 있어, 거래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후의 금값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미 역대치를 여러번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까닭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7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6월분 금값은 전월보다 36.90달러(1.6%)오른 온스당 2345.4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장 중에

는 지난달 3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를 넘은지 한달 만에 2350달러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이후 7일째 연속 상승세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값은 '실때 기준'으로 지난달 27일 순금(24K) 3.75g(1돈)이 처음으로 40만원선을 넘는 40만1000원을 기록했다. 이후 9거래일 연속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6일 43만1000원에 올라섰다. 더불어 18K 금 3.75g(1돈)도 27만7800원으로 최고가를 보였으며, 14K 금 3.75g(1돈)은 21만5500원을, 백금 3.75g(1돈)은 17만7000원을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의협 "대통령·전공의 만남 유의미...증원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에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총선 이후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원점 재논의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년이 바라보는 정치와 총선 ▶5면

골벨 실종 시대...배 농가 'Bee명' ▶8면

KIA 양현종 또 첫 승 불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해양치유완도

# 氣

## 치유가 필요해

# 청산도를 걸어봐

## 힐링 길

###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